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26화 붓다에게 귀의한 야사스



“그 러던 중 나는 한 무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녀가 춤을 추는 모습은 하늘의 천녀(天女)들이 놀고 있는 것보다 더 황홀했습니다. 그 여인도 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의 신분이 달랐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생각으로 그 무희(舞姬)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했고 그 여인도 이 세상에서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재물을 털어 온갖 금은보화를 사서 그 여인을 더

욱더 아름답게 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만약 내가 자기를 버리면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저의 생일이 되고, 그때는 그 여인을 데려다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님께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을 아는 수많은 친구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잔치를 벌였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도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나는 악몽에 시달려 잠이 깬고 밖으로 찬 바람을 쏘일 겸 나갔습니다. 뒤뜰의 연못가로 향했던 나는 그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선 나를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했던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여저 저녁 잔치에서 연주했던 한 젊은 악사와 더불어 서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여자의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가슴이 당장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 역시 그토록 사랑을 맹세했는데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이들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문(沙門)이시여, 저의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배신감에 분노하는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야 사스(耶舍)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너는 본심이 착한 사람이니라. 너에겐 아직도 선근(善根)이 있으니 내 너에게 법(法)을 말하여 주리라. 네 몸과 마음은 원래 빈(貧) 것이요 나(我)라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때때로 변화하며 덧없는 것이요, 마침내 고통(苦)의 존재일 뿐이로다.”

야사스는 본시 현명한 청년이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붓다의 말씀에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청년 야사스를 향한 붓다의 설득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사스의 눈은 점점 더 그 광채를 내고 있었다. 이때 야사스는 붓다로부터 보시, 지계, 생천론(生天論),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 번뇌, 더러움, 출리(出離)의 공덕 등을 듣게 된다. 마침내 야사스의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하는 것을 통찰한 붓다가 사성제(四聖諦)를 설(說)하자 야사스는 진리의 눈(法眼)을 뜨게 되었다.

“붓다시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질투와 저주로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잠을 수 없는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사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했고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다지도 분노의 피가 뿜뿜 쏟아오르는 젊은 사나이를 편안하게 잠재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붓다의 가르침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탁발을 나갔던 붓다의 다섯 제자들이 돌아와 이제 막 붓다에게 귀의할 것을 결심한 야사스(Yasas)를 환영하기에 이르렀다.

야 사스가 이미 부처님께 귀의(歸依, Sarana)하여 비구(比丘, Bhikkhu)가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야사스의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친구 등이 야사스의 행방을 찾아 붓다의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간밤에 실종된 야사스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고 있던 중 바야라 강가에서 야사스가 벗어던진 황금으로 장식된 신발을 발견하고 그가 이 근처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달려왔던 것이다.

“성스러운 사문(沙門, Samana)이시여, 혹시 이곳에서 귀하게 생긴 청년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제 아들 야사스가 여저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혹시 야사스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없어서는 아니 될 우리 가문의 외족자입니다.”

“그대가 찾는 야사스는 곧 이곳으로 올 것이니 그때는 이곳에 앉아 내 말을 들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이다.”

붓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야사스의 아버지를 진정시켜 앉게 한 후 야사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다. 붓다의 말을 듣고 있던 야사스의 아버지는 차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재물은 또한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진리란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다. 붓다의 설법에 크게 감동한 야사스의 아버지는 곧 재가신자(在家信者)가 되어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하였다. 그러자 나무 뒤로부터 이미 비구의 신분이 된 야사스가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 야사스, 그곳에 있었구나. 무사히 잘 있으니 천만다행이로다. 어젯밤 네가 그까저 광대들의 추태에 충격을 받고 실종된 후 성의 안팎을 온통 뒤지며 너의 행방을 찾아 다녔었다. 어쨌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무사하니 잘 됐다. 자 어서 돌아가자.”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이미 붓다께 귀의하고 출가한 몸입니다. 다시는 속세로 돌아가 또다시 어제와 같은 고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의 고통으로 저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제 뜻을 펼 수 있도록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이야. 네 뜻이 정녕 그러하기를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나.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나 역시 재가신도로서 부처님께 귀의한 몸이다. 자 우리 모두 붓다께 귀의한 기념으로 내일은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생각이다. 붓다께서도 저의 이 간절한 소망을 뿌리치지 마시고 첫 번째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리하여 바라나시(Varanasi)의 대재별인 구리가 장자는 그의 아들 야사스를 출가시키고 또 그 자신도 승가(Sangha)에 들어 최초의 우파사카(Upasaka, 憂婆塞, 清信士)가 되었다.

다음날, 구리가 장자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공양으로 붓다를 비롯하여 모든 승가의 식구들이 초대되었다. 공양식에는 바라나시의 이름 높은 명문 자제들이 이미 출가하여 비구(Bhikkhu)가 된 야사스의 초청으로 참여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야사스의 절친한 친구들로서 야사스의 돌연한 출가에 큰 충격을 받고 호기심만으로 참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붓다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고 붓다의 설법에 깊이 감동하여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니 그 수효가 무려 54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야사스의 어머니마저 포함되고 있었으므로 야사스의 어머니는 승가 최초의 우파사카(Upasika, 憂婆夷)가 되었다. 이리하여 붓다의 승가는 일거에 61명으로 늘어났다.

붓다는 이미 승가단체(僧伽團體)에 들어온 61명의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아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법륜을 굴리셨다. 그리하여 61명의 제자들은 모두 아라한(Arahan, 阿羅漢)이 되었다. 이로써 중생을 구하겠다는 붓다의 꿈은 실천단계로 옮겨가는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